

일곱 영과 우리의 영

메시지 5

주님의 회복의 증가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하여
활력적으로 살아있고 활동적으로 되도록 죽어있음과 미지근함을 이기는데 필사적임

성경: 계 3:1-6, 14-22, 롬 12:1-2, 11, 학 1:8, 엡 4:16

I. 계시록에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죽어있음과 미지근함을 이겨야 한다—3:1-6, 14-22

- A. 우리는 사데의 죽어있음을 이겨야 한다—계 3:1-6
1. 사데에 있는 더러움은 죄의 더러움이 아니고 죽음의 더러움이였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 죄보다 더 더럽히는 것이다—계 3:1, 4, 레 11:24-25, 민 6:6-7, 9
 2. 죽은 사람의 특징은 기능의 상실과 느낌의 상실(엡 4:19)과 무기력함(롬 7:15, 18)과 죽음의 냄새(요 11:39)와 매장됨(요 11:17)과 묶임(요 11:44, 롬 7:23)을 포함한다.
 3. 어둠과 불안과 불만족과 약함과 메마름은 내적인 영적 사망의 표시들이다—롬 8:6
 4. 우리의 영을 훈련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신의 영을 죽은 상황 속에 있게 하는 것이다.
- B. 우리는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함을 이겨야 한다—계 3:14-22
1. 라오디게아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 것에도 열정이 없다는 뜻이다. 명목상으로는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어느 것을 위해서도 생명을 희생할 수 없는 것이다. 과거의 영광은 기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현재 상태는 잊고 있는 것이다—계 3: 15-17
 2. 미지근하다는 것은 자기만족에 빠져 무관심하고 비활동적이고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이다—계 3:16-17
 3. “내가 우려하는 것은, 비록 우리에게 교리적 지식이 많고 영적으로 풍성하다고 여길지는 모르지만 살아있지 않고 활동적이지 않고 무관심하고 미지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교회들 안의 수많은 성도들이 많은 진리를 들어왔지만 주님을 위해 일하려는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활력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위트니스 리 전집*, 1993, vol. 1, pp. 269-270.

II. 이기는 이들은 활력적인—살아있고 활동적인—이들이다—계 3: 4-5, 21

- A. 이기는 이들은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사데의 죽어있음과 반대된다—계 3:4-5
1. 몸의 생활 안에서 우리는 사데의 죽어있음을 정복할 수 있다—롬 12:3-10, 겔 37:7-10, 영어 찬송 #842, #843, #844.¹⁾
 2.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되어 이 시대의 유행을 본받지 않음으로써 사데의 죽어있음을 정복할 수 있다—롬 12:1-2, 비교 창 12:7-8:
 - a. 우리가 죽어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기 때문이고 은밀히 이 시대를 따르기 때문이다—롬 12:1-2, 비교 출 7:17, 각주 1.
 - b.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전혀 보류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그리고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의 헌신을 반복해야 하고, 모든 것에서 매일 매순간 헌신의 위치에 서있어야 한다—롬 12:1, 레 6:9, 12-13.
 - c. 또한 우리는 이 시대를 은밀히 따르지 말아야 한다. 만일 조금이라도 이 시대를 따른다면 죽어있음을 정복할 수 없다.
 - d. 오늘날 미국에는 매우 부정적인 것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죄와 이 시대이다. 이 두 가지가 이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어있게 한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롬 12:2, 출 7:17, 각주 1.
 3.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살아있게 함으로써 곧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죽음에서 나오게 함으로써 사데의 죽어있음을 정복할 수 있다—살전 5:23, 16-18
 - a. 우리는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도록 놔두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영이 그렇게 죽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되도록 분투해야 한다.
 - b. 우리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죽어있음의 상태에서 우리의 영이 해방되게 할 수 있다—살전 5:16-18.
 4. 반드시 우리는 해방되고, 살아있고 신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비교 행 2:46-47

- a. 반드시 우리는 해방되고 살아있고 신선한 생활을 살아야 하고, 하루종일 주님과 늘 교통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매일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생활을 살아야 한다—살전 5:16-18, 엡 6:17-18.
- b.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머지않아 교회 전체가 부흥될 것이다.
- B. 이기는 이들은 활동적이다. 활동적인 것은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함과 반대된다—계 3:21, 롬 12:11
 - 1.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추구함으로써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함을 정복할 수 있다—계 3:17-18, 20
 - a. 우리는 어느 정도 그리스도를 누릴지 모르지만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더 풍성히 그분을 누려야 한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새로운 체험들을 원하다고 주님께 말씀드려야 한다—빌 3:12-14.
 - b. 우리는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일지 모르지만 오직 어느 정도까지만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틀에 박힌 교회생활과 그리스도를 위한 틀에 박힌 일과 봉사에 만족하고 있을지 모른다. 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기는 이들이 필요하시다.
 - 2. 우리는 열심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고 영 안에서 불타 주님을 섬김으로써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함을 정복할 수 있다—롬 12:11

III. 우리는 다음 두 가지 것에 주님의 부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활력화 되어야 한다. 즉 교회들의 증가와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 바로 이것이 오늘날 주님이 부담이며 이 또한 우리의 부담이 되어야 한다—행 16:5, 엡 4:16

- A. 만일 우리가 활력적이라면, 교회들 가운데 합당한 증가가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행 5:14, 6:7, 9:31, 16:5, 겔 36:37-38, 학 1:8, 각주 1.
- B. 오늘날 주님은 교회들이 합당한 증가를 갖기를 갈망하신다. 또한 주님은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 안에서 참된 건축이 있기를 갈망하신다.
- C. 주님은 우리가 복음으로 죄인들을 낳고, 새신자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온전케하고, 교회 건축을 위해 신언함을 통하여 이것을 수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을 절대적으로 필사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부담을 받고 활력화되어야 한다—고전 4:15, 살전 2:7, 엡 4:12, 고전 14:4.
- D. 그런 부담을 취한 뒤에는 다른 이들에게 가서 접촉하도록 뚜렷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우리가 접촉할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친지와 친구와 동료와 급우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포함되며 또한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뒤로 물러가고 동면중인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된다.

IV. “오늘날 하나님은 신부의 예비를 위하여 미국을 예비해 두셨다....그분의 갈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로 갖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실재와 교회생활의 참된 내용으로 가짐으로, 각 교회가 금등잔대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몸의 생활은 로마서 12장의 실재에 도달할 것이다. 바로 이것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신부의 예비가 될 것이다.”—워트니스 리 전집, 1981, vol. 1, pp. 308-309.
